

보트 타고 노닐던 경양방죽... 문화수도 콘텐츠로 복원 어떻게

新湖南誌

<11>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제3부- 토종과 자연이 빛은 향토사

◎ '자연·역사·문화'의 재발견과 亞문화수도

조성식 한국학진흥원설립추진위 기획협력처장

요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 콘텐츠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순실 예산' 때문에 콘텐츠 예산이 없어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예산이 있더라도 콘텐츠 구축에 대해서 '전통유산에 대한 재발견, 재구성, 재창조' 인식, 사유, 접근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까지 다양한 언급과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우리의 전통유산 속에서 아시아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콘텐츠를 어떻게 재발견하고 재구성하며 재창조하느냐가 관건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유산 가운데 '경양방죽'도 아시아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콘텐츠를 갖고 있는 훌륭한 전통유산이다.

경양방죽은 삼국시대에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관련 축조돼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개축과 보수를 거듭했다. 특히 조선시대 세종시기에 대대적으로 개축된 역사적으로 유구한 세월을 거친 유구한 전통유산이었다. 세종과 김방이 개축한 경양방죽은 관개용, 홍수대비용 등의 저수지로서 기능했고 조선시대 내내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전통자산이었다.

경양방죽은 과거 지도에는 엄연하게 표기되었던 실제의 전통유산이었지만 현재는 글, 지도와 사진 등과 같은 기록자료만 전해지는 역사유적이다. 오늘날 광주 시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양방죽의 실체는 사라지고 없다. 일제가 식민지에 대한 지배 차원에서 역사와 지도상에서 경양방죽의 3분의 2를 없애버리고 그 나머지 3분의 1은 박정희 정권이 개발독재라는 미명 하에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경양방죽에 대한 기록자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져왔다. 전설, 마을설화, 고문헌, 고지도, 고시 등과 같은 사료 형태였다. 이런 사료들은 경양방죽을 재발견하고 재구성하며 재창조하는 원천 자료다.

전설, 마을 설화, 고문헌, 고지도, 고시 등과 같은 이런 사료들은 경양방죽의 자연유산, 역사유산, 문화유산을 어떤 경우에는 드러내지 않고 숨겨두기도 하였고 어떤 다른 경우에는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도 해왔다. 그러나 이들 사료는 직접 드러내기도 하지만 드러내더라도 왜곡하거나 편파적이거나 신뢰하기 곤란할 수도 있다. 나아가 사료는 아예 직접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사료들을 온전한 사료로 바꾸는 것이 사료비판이다.

경양방죽에 대한 사료는 일찍부터 있었지만 사료비판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경양방죽의 축조시대와 축조자와 같은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사료비판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개축시대가 축조시대와 왜곡되었고 개축자가 축조자로 변신해버렸다.

사료비판을 하더라도 사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광주시 동구 계림동 옛 광주시청 일대에 자리잡았던 인공 호수 경양방죽은 도시인들이 보트를 타고 노를 저으며 잠시나마 일상의 피곤을 씻어낼 수 있는 휴식처였다. 1440년 세종이 김방을 시켜 3년 만에 완공했다고 전해지지만 확실하지 않다. 1930년대 중반에 1차 매립 공사를 진행했고, 1960년대 말에 방죽 옆에 있던 신안동의 태봉산을 모조리 헐어서 조달한 흙으로 2차 매립했다. 이 바람에 방죽과 태봉산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광주 동구 계림동 옛 시청 일대 '풍암지' 만한 인공호수

전원이 후백제 건국 때 축조... 조선 세종때 대대적 개축

일제 강점기 때 대부분 없어지고 박정희 정권 때 매립

삭막한 인공도시 속 인문학적 사유 즐길 공간 그리워

사료가 누락되는 안 되는데 지금까지 경양방죽에 관한 연구와 서술에서는 자세한 사료들을 포괄하지 않았다. 경양방죽이 전국의 다른 중요한 저수지와 마찬가지로 고대에 축조되었다는 사료, 견훤의 정치세력 확장과 연관된 축조자 전설과 같은 사료들이 도외시되었다.

전설은 의의상으로는 사실과 무관한 허구일 수도 있지만 양과 껍질 벗기듯이 하면 사실관계에 이를 수 있다. 지역의 전설들은 광주, 전남, 전북, 충남, 충북과 같이 서로 다른 지역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상호 무관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왕조의 쇠퇴기에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 발전이나 사회경제적 모순의 해소과정에 연관되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전설들이 유기적으로 묶일 수 있다.

경양방죽은 규모상으로 원래 면적 6만5418평(216,259㎡)이었는데 이는 현재 광주 풍암지구에 있는 풍암지의 규모였다. 경양방죽은 광주가 대도시로 성장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지방도시 호수로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컸다는 점이다.

경양방죽은 이 자체만으로도 전통유산의 가치가 충분히 있었는데, 게다가 경양숲, 무등산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을 선사하는 장대한 자연경관이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호남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주가 남도의 근대화, 도시화 중심축으로 성장할수록 경양방죽의 전통유산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다. 광주는 다른 지역 거점도시와 마찬가지로 인구증대, 거대화, 속도전과 경쟁, 슬럼화, 아스팔트와 아파트 등과 같은 근대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인문학적 위기와 전통단절의 폐단에 직면하고 있다.

광주 시민들이 이러한 위기와 폐단 앞에서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면 그들은 인문학적 사유도 잃어버리고 전통유산도 알지 못하는 국적 불명의 왜소한 시민이 될 뿐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경양방죽, 경양숲, 무등산이 어우러진 장대한 자연경관의 품에서 자연을 외경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화법을 배우고 자연 속의 예도문화, 풍류문화를 접하고 향유하고 체험하면 삶은 더 풍부해질 것이다.

또 자연이 연출하는 장대한 자연경관 앞에서 시민들은 스스로 인문학적 사유를 할 수 있고 전통의식을 체화해갈 수 있다. 경양방죽의 맑은 물, 맑은 바닥에 울창한 경양숲, 계다가 잠입한 무

등산이 어우러진 장대한 자연경관 앞에서, 그러한 자연경관 속에서 광주 시민들은 생태힐링, 슬로우체험, 예도문화 향유, 의향계승, 공동체의식 공유 등 인문학적 사유를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전통의식을 다양하게 체화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양방죽의 자연경관적, 인문학적, 전통계승적 가치는 오히려 그것을 없애버린 이후에 더욱 소중한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오늘날 광주시가 대도시로 발전한 과정에서 광주천이나 영산강이 과거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산과 인위적인 공간이 지나치게 많고 이에 비해 물과 자연적인 공간이 지나치게 부족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광주 도심권은 물과 숲이 없는 대표적인 인공도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경양방죽의 모습은 1967년에 완전히 사라졌지만 고문헌, 고지도, 시가에는 아직 그 정취가 스며들어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정서와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경양방죽을 복원한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앞당기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뛰어난 소프트웨어다.

경양방죽은 단순한 호수가 아니라 우리들과 500여년 간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호남의 역사적인 유산이다.



▲ 광주문화도시협 前 사무처장, 現 집행위원
▲ '사드철회, 성지수호' 원불교대책위 광주전남교구 집행위원장

전라도 들여다보기

유희춘과 미암일기

김형주

미암 유희춘(柳希春)은 1513년 해남에서 부친 유계린(柳桂)과 모친 탐진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본관은 선산(善山)이다. 김인후와 함께 모재 김인국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38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1544년 사가독서(賜暇讀書)한 후 수찬·정언 등의 관직을 지냈다. 1546년(명종 1) 을사사화 때 김광준(金光準)·임백령(林百齡) 등이 윤인(尹任) 일파를 제거하는데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추종하지 않았다.

1547년 당시 집권세력인 윤원형 일파의 소윤(小尹)을 비난하는 대자보가 게시된 양재역(良才驛)의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고향 근처라는 이유로 다시 함경도 종성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19년간을 보내면서 독서와 저술에 몰두하였다. 이 시기는 북방 변경의 사람들이 곤궁한 환경에서 문자를 해독하는 자가 거의 없었는데, 이들에게 교육을 베풀어 글을 배우는 선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1565년 충청도 은진에 이배되었다가, 1567년 선조가 즉위하자 3정승의 상소로 석방되었다. 직강·응교·교리 등을 거쳐 지제교(知製敎)를 역임했으며, 이어 성균관 대사성·부제학·전라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1575년 예조·공조의 참관을 거쳐 이조참판을 지내다가 사직하고 처한인 담양으로 낙향하였다. 그는 통찰력과 해박한 상식의 선구적 지식인이었다.

표해록을 쓴 유희춘이 전남 금남포(峯浦)의 학맥을 계승해 이항(李恒)·김인후 등과 함께 호남지방의 학풍 진작에 크게 기여하였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담양의 의암서원(義巖書院: 鶴唳閣), 고창의 충현사(忠賢祠), 종성의 종산서원(鍾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미암일기', '속취변(續欸辨)', '역대요록(歷代要錄)', '속취변(續欸辨)', '천해록(川海錄)', '현근록(獻芹錄)', '주자어류전해(朱子語類箋解)', '시서석의(詩書釋義)', '완심도(玩心圖)' 등이 있으며, 편찬서로는 '국조유선록(國朝備先錄)'이 있다.

미암일기(眉巖日記)는 유희춘이 그의 나이 55세 되던 1567년 10월 1일부터 세상을 떠나던 해인 1577년 5월 13일까지 약 11년에 걸쳐 쓴 일기다. 원래는 14책이었으나 현재 11책만이 전하고 있다. 이 중 10책은 그의 일기이고, 나머지 1책은 자신과 조선시대 4대 여류문인으로 꼽힌 부인 송덕봉(宋德峰)의 시문(詩文)을 모은 부록이다.

미암일기는 유희춘이 유배에서 돌아와 다시 관직생활을 영위할 때의 기록이므로 경연관으로서의 강론 내용을 비롯한 관직 수행과 관련된 조정의 동향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 일기는 율곡 이이의 '경연일기'(經筵日記)와 함께 '선조실록' 작성에 사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기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미암일기는 당시의 시대상 뿐 아니라 사정의 풍속이나 상거래, 농업 등의 생활활동의 모습도 매우 소상하게 담겨있다.

'미암'(眉巖)은 그의 향리인 해남 미암산(금강산)에 있는 눈썰마루에서 유래하였다. 보물 제260호 미암일기는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에 소재하는 모현관(慕賢館)에 보관하여 오다가 2015년 문물연 미암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